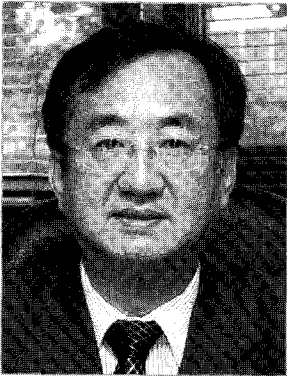


##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 세 진  
서부사료(주) 대표이사

요즘 양계업계를 바라보면 한마디로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근래 보기 드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물론 시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시장원리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닭의 해를 맞아 각 방송사에서 양계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왜곡된 정보에 대한 바로잡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양계산물의 가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소비자에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가설을 놓고 지금과 같은 양계산업의 호황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셈이다.

첫번째 가설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양계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산체계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고질적인 몇 가지 요소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질병문제다. 질병과 연관된 요소는 다시 수직감염과 수평감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직감염은 종계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병아리에 이행됨으로써 처음부터 질병에 감염된 병아리를 육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병아리를 다시 정상적인 병아리로 복원시키는데 경제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계속 퍼져나감으로써 사육농장은 병원성 미생물이 상주하는 환경처가 되고 인근의 농장까지 오염되어 정상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질병에 감염된 병아리를 치료하기 위해 투여되는 항생제와 이에 따른 막대한 자금과 인력은 정상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대두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병아리는 자체 항병력이 약해진 상태이기에 외부의 병원성 미생물의 작은 공격에도 감염되어 제2의 질병에 감염되는데 이를 수평감염이라고 한다. 물론 수직감염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평감염은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항병력이 강한 상태이

기에 정상적인 소독 및 차단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경우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게 된다.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농장주는 물론 관리인도 포함된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첨단 시설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경영한다면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공산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고 생산하는 일이기에 입력된 명령 외에는 수행하지 않으므로 시설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장주는 관리인이 자신들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인드 없이 농장 경영을 수행한다면 그 농장은 분명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산성을 도출하고 있는 농장에 비해 수익성은 턱없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두번째 가설은 첫번째 가설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하여 수요를 함께 끌어올려야만 양계산물 시세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산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섬은 물론 양계산물의 식품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의 미각을 극대화할 수 요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양계산물은 다른 축산물에 비해 영양적 가치 및 건강에 기여하는 역할에 비해 다른 축산물 대비 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몇 가지 요소를 나열하면 지금 당장 소비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계산물 내의 잔존하는 항생제와 병원성 미생물, 제대로 생산된 양계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오염 방지를 위한 가공, 보관, 유통과정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문제는 향후 소비자로부터 강력하게 거론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양계산물의 가치를 올리고 인정받는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첫번째 가설에 대한 해결은 기본이 되고 두번째 가설이 성립될 때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양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물질적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장을 경영하면서 일반적인 요소를 묵과한 채 농장주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한 요소만을 중시해서 농장경영 성과 도출에 크나큰 차질을 빚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제한요소를 도출 해결함으로써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만들고 이를 통한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화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양계산물이 지니고 있는 영양학적, 미각적 가치 홍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소비자, 농장, 양계관련업체 모두가 win-win-win이 가능해져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제안해 본다. **양계**